



양궁 안산

양궁 김제덕

수영 황선우



올림픽을 즐기는 유쾌한 Z세대

온 국민의 '웃음 백신'

탁구 신유빈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 Z세대들이 코로나19에 신음하는 국민이 미소짓는 또 다른 '웃음 백신'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18·19면>
"탁구요정" 신유빈(17·대한항공)은 명실상부한 한국 여자탁구 에이스로 마·아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신유빈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2회전에서 58세의 베테랑 니시이리안(룩셈부르크)에 극적인 4-3 역전승을 거두고 3회전에 올라 국민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탁구 보는 재미"를 오랜만에 일깨워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신유빈은 27일 열린 여자 단식 3회전(32강)에서 홍콩의 두호이켄에 2-4로 지고 난 뒤 울음을 터트리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했다.
안산(20·광주여대)과 김제덕(17·경북일고) '막내 듀오'는 양궁 혼성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냈다. 대한민국 양궁 남녀 대표팀의 막내인 이들은 첫 올림픽 무대에서 2관왕에 올랐다. 김제덕은 '양궁천재', 안산은 '펜팔깁'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신유빈, 탁구 보는 재미 일깨워줘 안산, 웃으면서 활 쏘고도 금메달 김제덕, 양궁장 떠나가라 "빠이팅" 황선우, 펠프스 칭찬 수영의 미래
이들은 양궁 경기장에서 거침없는 말투와 쿨한 매너, 기존 선수들에게서 볼 수 없는 경기 스타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스포츠계의 Z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태생)라 할 수 있다.
안산은 올림픽이라는 대형 무대에서 시종 웃는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해 역시 신세대 공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5일 금메달을 딴 여자 단식전에서 '웃는' 표정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된 안산은 "일부러 더 그런(웃은) 것도 있고, 팀워크를 위해서 신나게 시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은 지난 25일 단식전 결승에서 우승한 뒤 "혹시 안산시 홍보대사를 할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우스개 질문에 "안산은 기본 적도 없어요"라고 대답해 함께 인터뷰에 나선 대표팀 언니 강채영과 장민희를 크게 웃게 했다. 안산은 평소

에도 '철렁한 아재개그'를 구사해 아빠들과 유머 코드가 맞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
김제덕은 지난 26일 열린 남자양궁 단체전 일본과 준결승에서 '영웅'이 됐다. 그는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온 주역이다. 김제덕의 10점은 중심에서 3.3cm, 가와타의 화살은 5.7cm 떨어져 있었다. 2.4cm가 승부를 갈랐다.
김제덕은 경기 때마다 자신이 활을 쏘거나, 동료 화살을 쏘고 난 뒤 엄청난 데시벨의 목소리로 양궁장이 떠나가라 "빠이팅"을 외치고 있다. 팬들이 양궁장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세대 스타일이다.
한국 경영 선수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박태환 이후 9년 만에 결승에 오른 황선우(18·서울체고)는 지난 25일 치른 예선에서 1분44초62의 한국 신기록 및 세계 주니어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27일 결승에서 7위(1분45초26)로 경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가 한국 수영의 미래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는 "올림픽에서는 선수를 향한 팬과 미디어의 관심이 달라진다. 황선우는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북정상 "하루속히 관계 진전"

통신연락선 13개월만에 전격 복원...정상 핫라인은 아직 4월부터 여러차례 친서교환...北 "관계 회복 간절히 바라"

1년 넘게 끊겼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27일 전격 복원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소통해온 결과로,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연락선을 단절했던 지 413일 만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소통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락선 복원을 넘어 남북 교류협력 재개, 나아가 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북한이 남측에 이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지와 맞물려 한동안 멈춰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기계실 간 통화를 진행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통화했다. 남북 군 당국도 오전과 오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시험통화를 했다. 남북은 예전처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매일 오전·오후 두 번씩 정기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아직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남북연락선 복원은 남북정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양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 이 하루속히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북한도 거의 같은 시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연락선 복원과 정상 간 친서교환 사실을 확인한 뒤 "은 거레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9·19 군사합의 이행 등의 현안에 속도를 내기를 기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내년 대선 박빙승부...당내 경선 생채기 그만"

민주당 광주시당서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사진) 전 대표는 27일 "박빙의 승부를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지역구도를 소환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은 아마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집권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탈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이래 민주당 지도자는 지역 구도 명령을 없애기 위해 끈질긴 투쟁을 해왔고, 그 덕분에 지역 구도 생채기가 많이 아물고 이제는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제 그 생채기를 댄내는 일은 절대대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지사가 '백제 발원'과 관련해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에는
위험한 학원... 초중고생 상대 범죄 출몰 ▶6면
은행 문 오후 3시 30분에 닫는다 ▶9면
소박한 한옥... "이곳은 공영장입니다" ▶16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건 논쟁이 재연될 것 같아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전국을 많이 다니지만, 저 자신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실감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공명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련한 리더십을 지역과 관계없이 갈구한다고 생각하고 지역 구도에 따른 공약으로 선거를 바라보는 분이 계시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남 광주에서 사무연구직 노조, 외국인투자 기업 노조, 어린이 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등이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1박 2일 간 광주에 머물며 의견을 환곡했다.
/최민기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7개 코스 시범운영 후 7월 초부터 모든 코스 정상운영 예정
2021. 6. 14. ~ 6. 27. 시범운영
2021. 6. 14. ~ 8. 31.

남도안바퀴

전라남도 금호고속

매일매일 골라 즐기는 남도여행

온라인 구매 검색창에 남도안바퀴 검색
http://citytour.jeonnam.go.kr
오프라인 구매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
예약 및 문의 062) 360-8502
탑승 장소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32번출(남도안바퀴 출), 광주승정역(역시승강장)
※ 일부 상품의 경우 나주역(나주종합스포츠파크), 나주혁신도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버스정류장)에서 탑승
유의 사항
- 예약 확인증, 예약일자 제시 후 탑승
- 식사, 입장료, 기타 비용 개별 부담
- 날씨, 도로상황 등에 따라 시간 및 코스 변경 가능(대체 코스 운영)
- 임시 휴관 및 일시 폐쇄된 관광지는 코스 변경 가능
- 차량 보험만 포함(여행자 보험 불포함)
코로나19예방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측정 협조(미준수 시 탑승 불가)
- 유증상자 탑승 불가
- 좌석 간 거리두기 실천(한번씩 띄워주기)
- 차량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대화 자제

2021.6.14~6.27 시범운영

신과 바다를 품은 목포 오션뷰 여행

푸릇푸릇 자연이 내뿜는 화순-보성-순천 초록여행

안산에서 바다를 신으로 무안-신안-영광 바다전선 여행

봄은 백수 푸른 순지 영광-고창-여름 나들이

2021.6.14~6.27 시범운영

온라인 관광이 있는 함평-무안-나주 생태여행

바다있는 길 순천-여수-고흥 힐링로드

어울릴 바다 해남-진도-함도여행

2021.6.14~6.27 시범운영

파란하늘아래 장성-담양-마음산책

산전환하며 곡성-남원 포근한여행

바람이 불려주는 이야기 장흥-강진-관주 시간여행

눈과 입을 사로잡는 나주-해남-안도 맛있는 여행

KTX+남도안바퀴 코스

2021.6.14~6.27 시범운영

남도의 바다를 품은 여수-진도-여수 여행

신안-안동-순천-남원-영광-담양-마음산책

2021.6.14~6.27 시범운영

함평-무안-나주 생태여행

남과 북이 만나는 영광-담양 여행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성-담양-마음산책

2021.6.14~6.27 시범운영

함평-무안-나주 생태여행

남과 북이 만나는 영광-담양 여행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성-담양-마음산책

2021.6.14~6.27 시범운영

함평-무안-나주 생태여행

남과 북이 만나는 영광-담양 여행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성-담양-마음산책